

# 서울시민이 말하는 2009년 경제회고 및 2010년 희망사항

박희석 연구위원 · hspark@sdi.re.kr

한진아 연구원 · cycle13@sdi.re.kr

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

- 2009년 서울경제는 금융위기로 내수침체, 소비심리위축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신성장산업 지원 정책 등으로 경기회복세에 진입함
- 그러나 실제 금융위기가 서울시민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살펴보고,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 2009년 정책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2010년에 바라는 점을 살펴보고자 함
- 이를 통해 향후 서울시민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2010년 서울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였음
- 설문방법은 서울지역 표본 1,000가구를 대상으로 11월 23일~ 12월 4일까지 열흘간 전화 인터뷰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, 표본의 신뢰수준은 95%, 오차는  $\pm 3.1\%$  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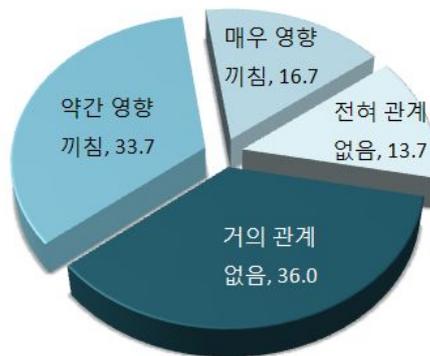
- 본 설문조사는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, 「서울시정개발연구원」 및 「서울특별시」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
- 시민의견조사에 협조해 주신 서울시 설문 담당자와 설문에 응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## I. 미국발 금융위기가 서울시민의 생활에 미친 영향

지난해 가장 큰 경제 이슈였던 미국발 금융위기가 서울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금융위기 이후 ‘소득 및 소비 지출액’의 변화와 ‘저축 및 부동산가치 변화’에 대해 조사하였음

### 1. 종합

-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서울시민은 50.4%였으며,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시민은 49.7%인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로 실생활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시민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



[그림 1] 미국발 금융위기가 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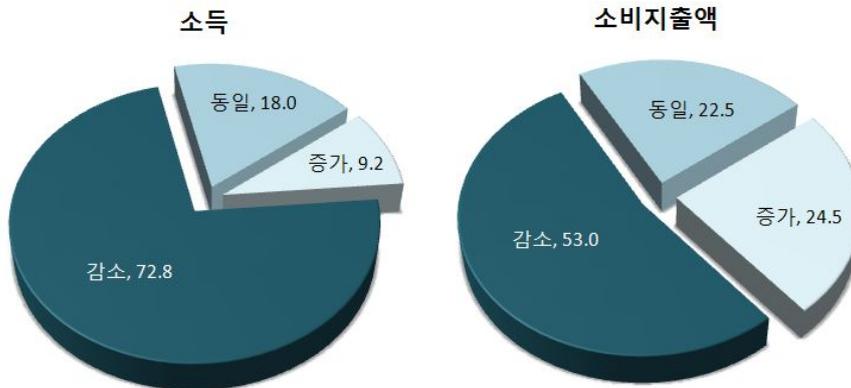
-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위기가 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음
  - 3,000만원 이하의 경우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4.4%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가계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  - 반면, 3,000만원 이상의 경우 53.6%가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소득별 응답비율의 차이를 볼 수 있었음



[그림 2] 가구소득별 미국발 금융위기가 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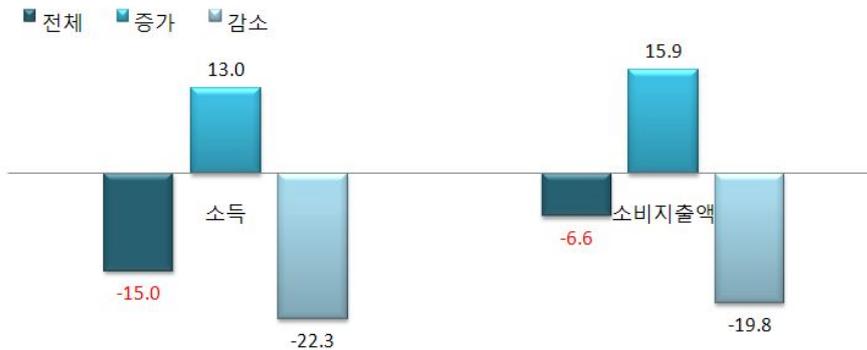
## 2. 소득 및 소비지출액

-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가계에 직간접적인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511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소비지출액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함
-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가구는 9.2%에 불과하고,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.8%에 달함
- 한편, 소비지출액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가구는 24.5%였으며, 나머지 53.0%는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여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불안한 경제 상황이 금융, 유가, 환율, 주가 등으로 전이되어 시민들의 소비지출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



[그림 3] 소득 및 소비지출액의 변화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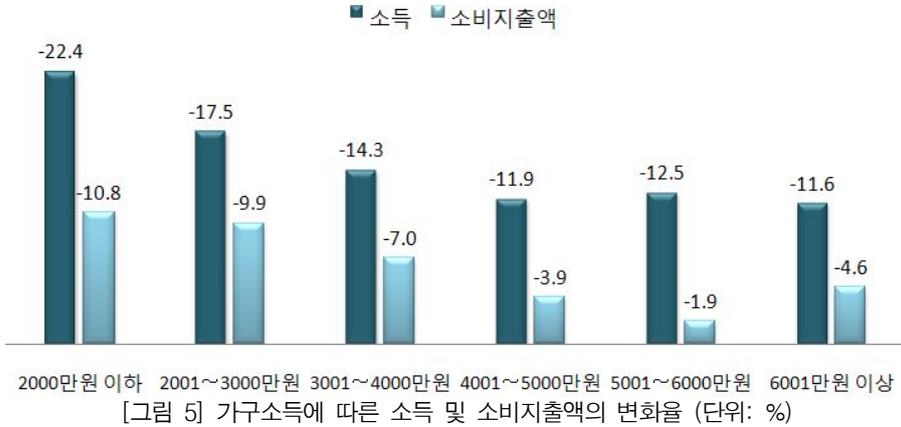
- 구체적인 감소액을 살펴보면 소득은 전년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15.0% 감소하였고 소비 지출액은 6.6% 감소함.
- 소득이 소비지출액보다 더 크게 감소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은 더 궁핍해진 것으로 판단됨
- 소득증감 가구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소득의 13.0%가 증가하였고, 감소한 가구는 22.3% 감소함.
- 또한, 소비지출액이 증가한 가구는 전년도에 비해 15.9% 증가한 반면, 감소한 가구는 19.8% 감소하였음



참고: 전체 1,000가구, 증가감소 511가구

[그림 4] 소득 및 소비지출액의 변화율 (단위: %)

- 소득과 소비지출액은 대체로 2,000만원 이하로 가까워질수록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, 그 변화폭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음
- 특히, 연소득 2,000만원 미만 가구의 2009년 소득은 전년도 대비 22.4%가 줄어들어 10%대의 감소율을 보인 다른 소득계층과 차이를 나타내어 금융위기가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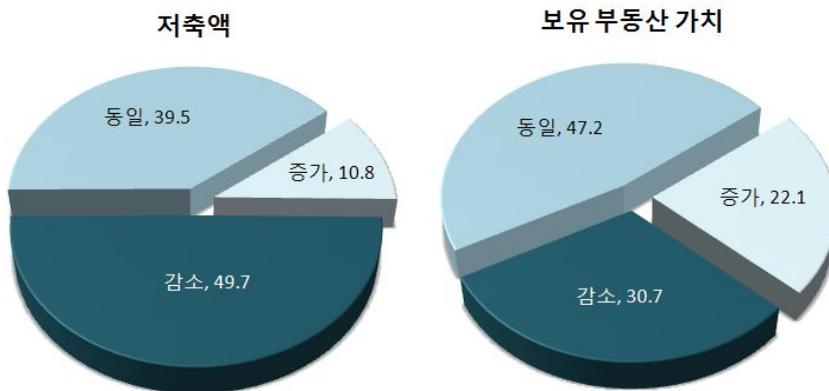


○ 연령별 소득을 살펴보면 30대 이하에서 소득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 17.9%로 10%대 미만의 다른 연령대와 현저한 차이를 보임. 경제위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30대 이하에서는 6.91%의 감소율을 보였지만 40~60대는 10~20% 사이의 감소율을 보임

-반면, 연령별 소비지출액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소비지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
### 3. 저축액 및 부동산가치

○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511가구 중, 작년에 비해 저축액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가치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9.7%, 30.7%로 나타남



[그림 6] 저축액 및 보유 부동산 가치의 변화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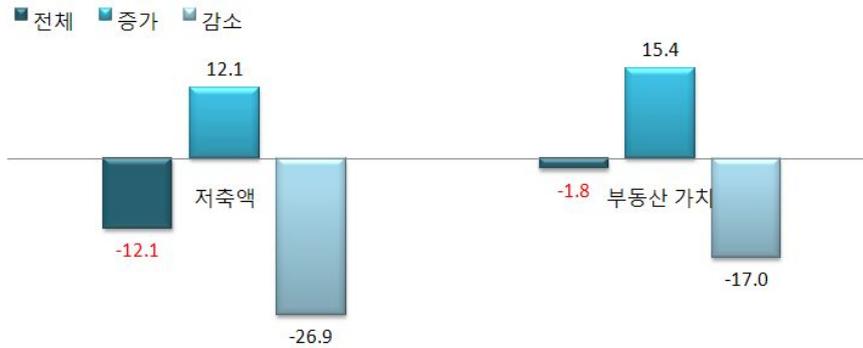
- 가구소득이 4,000만원 이하의 가구 50% 이상이 작년보다 저축액이 줄었다고 응답해 4,000만원 이상 소득계층과 다소 차이를 보임
- 연령대별로는 40~50대에서 저축액을 늘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8%대로 다른 연령대보다 저축액을 더 낮추거나 중전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. 이는 취학자녀의 사교육비를 부담해야하는 40~50대가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저축액을 줄인 것으로 판단됨

<표 1> 저축액과 보유 부동산가치의 변화

(단위: %)

| 구 분 |             | 빈도수 | 저축액  |      |      | 보유 부동산가치 |      |      |
|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
|     |             |     | 증가   | 감소   | 동일   | 증가       | 감소   | 동일   |
| 전 체 |             | 511 | 10.8 | 49.7 | 39.5 | 22.1     | 30.7 | 47.2 |
| 소득  | 2000만원 이하   | 83  | 7.2  | 51.8 | 41.0 | 15.7     | 27.7 | 56.6 |
|     | 2001~3000만원 | 89  | 5.6  | 57.3 | 37.1 | 15.7     | 40.4 | 43.8 |
|     | 3001~4000만원 | 96  | 11.5 | 55.2 | 33.3 | 20.8     | 27.1 | 52.1 |
|     | 4001~5000만원 | 83  | 12.0 | 47.0 | 41.0 | 22.9     | 31.3 | 45.8 |
|     | 5001~6000만원 | 54  | 9.3  | 51.9 | 38.9 | 25.9     | 33.3 | 40.7 |
|     | 6001만원 이상   | 106 | 17.0 | 37.7 | 45.3 | 31.1     | 26.4 | 42.5 |
| 연령  | 30대 이하      | 78  | 15.4 | 46.2 | 38.5 | 20.5     | 26.9 | 52.6 |
|     | 40대         | 153 | 8.5  | 45.1 | 46.4 | 22.9     | 25.5 | 51.6 |
|     | 50대         | 169 | 8.3  | 53.8 | 37.9 | 23.1     | 34.9 | 42.0 |
|     | 60대         | 111 | 14.4 | 52.3 | 33.3 | 20.7     | 34.2 | 45.0 |

- 저축액과 부동산 가치의 변화율을 살펴보면, 전체적으로 저축액은 전년도 대비 12.1% 감소하였으며 보유 부동산 가치는 1.8% 감소함
- 구체적으로 보면, 저축액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가구는 평균적으로 12.1% 저축액을 늘렸으며 반대로 저축액을 감소시킨 가구는 26.9%를 줄인 것으로 조사됨
- 부동산 가치의 경우는 감소율이나 증가율이 15%대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



참고: 전체 1,000가구, 증가감소 511가구

[그림 7] 저축액 및 보유 부동산 가치의 변화율 (단위: %)

- 저축액의 변화율은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커지고 있음. 한편 보유 부동산 가치를 보면, 6,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5%대 미만의 감소율을 보이지만 6,000만원 초과 계층에 서만 유일하게 0.18%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
- 금융위기로 인한 보유 부동산 가치의 변화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였 다고 응답한 비율이 커지고 있음. 소득이 높을수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거나 가치가 큰 만큼 고소득자일수록 을 한해 저금리 정책의 혜택을 많이 본 것으로 판단됨

<표 2> 저축액과 보유 부동산가치의 변화율

(단위: %)

| 구 분 |             | 빈도수 | 저축액    | 보유 부동산가치 |
|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전 체 |             | 511 | -12.07 | -1.82    |
| 소득  | 2000만원 이하   | 83  | -17.19 | -2.11    |
|     | 2000~3000만원 | 89  | -15.63 | -4.26    |
|     | 3000~4000만원 | 96  | -12.90 | -2.10    |
|     | 4000~5000만원 | 83  | -11.29 | -1.10    |
|     | 5000~6000만원 | 54  | -9.56  | -1.90    |
|     | 6000만원 이상   | 106 | -6.23  | 0.18     |
| 연령  | 30대 이하      | 78  | -7.22  | -2.13    |
|     | 40대         | 153 | -10.45 | -0.51    |
|     | 50대         | 169 | -15.08 | -2.40    |
|     | 60대         | 111 | -13.14 | -2.52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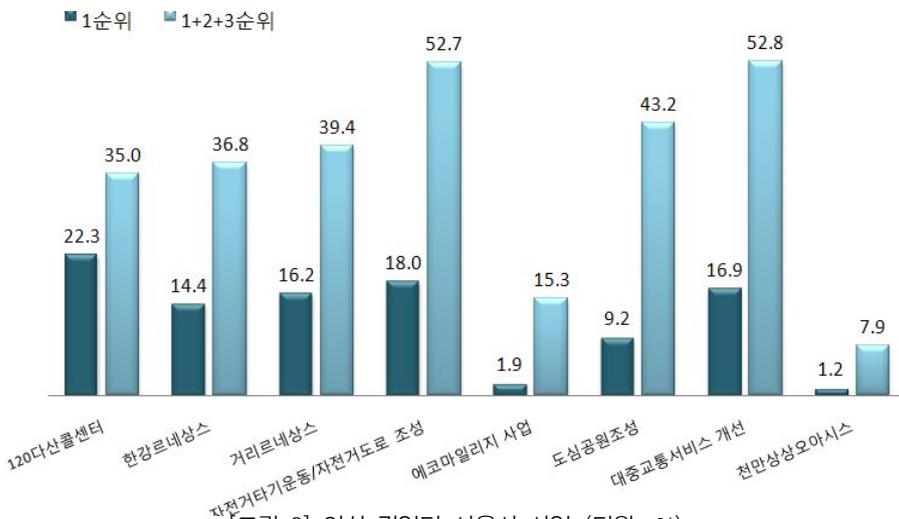
- 미국발 금융위기는 서울 시민들의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남. 가구의 소득액이 달라지면서 소비와 저축 및 투자 양상이 변했으며,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들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변화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음
- 합리적인 소비와 안정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
## II. 2009년 인상 깊은 서울시 중점사업 및 2010년 희망사항

### 1. 2009년 인상 깊은 서울시 중점사업

2009년 서울시 중점사업들에 관해 다수의 서울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생활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‘120 다산콜센터’, ‘대중교통서비스 개선’, ‘자전거타기운동/자전거도로 조성’ 사업들이 인상 깊었던 것으로 응답함

- 2009년 서울시에서 실시했던 사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업으로는 서울시와 관련된 민원  
을 한통의 전화로 연결해 주는 ‘120 다산콜센터’가 22.3%의 비율을 보이며 1순위로 꼽힘  
- 그 다음으로는 ‘자전거타기운동/자전거도로 조성’(18.0%), 버스 보급 확대 및 고품격 시  
내버스 모델 도입 등의 ‘대중교통서비스 개선’(16.9%), 디자인도시 서울을 위한 “거리르  
네상스’(16.2%)와 살기 좋은 공간마련을 위한 ‘한강르네상스’(14.4%)와 같이 시민들의  
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들이 인상 깊었던 것으로 나타남
- 반면, 녹색도시의 일환으로 시민 고객이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에코마일리지가 쌓여 저  
탄소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‘에코마일리지 사업’과  
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서울시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‘천만상상 오아  
시스’는 인지도 측면에서 다른 사업들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임



[그림 8] 인상 깊었던 서울시 사업 (단위: %)

- 소득별로 인상 깊었던 서울시 사업을 살펴보면, 2,000만원 이하에서는 ‘자전거 타기 운동/도로조성’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답하였고, 2,000~6,000만원 소득계층에서는 ‘120 다산 콜센터’를, 마지막으로 6,000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‘대중교통서비스개선’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답하였음

<표 3> 소득별 인상 깊었던 서울시 사업

(단위: %)

| 구 분 | 빈도          | 120 다산 콜센터 | 한강 르네상스     | 거리 르네상스 | 자전거 타기운동 도로조성 | 에코 마일리지     | 도심공원 조성 |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| 천만상상 오아시스   |     |
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
| 전 체 | 1,015       | 22.3       | 14.4        | 16.2    | 18.0          | 1.9         | 9.2     | 16.9        | 1.2         |     |
| 소득  | 2000만원 이하   | 195        | 18.5        | 10.3    | 12.3          | <b>24.6</b> | 1.5     | 9.2         | 21.5        | 2.1 |
|     | 2000~3000만원 | 193        | <b>23.8</b> | 15.5    | 10.9          | 19.2        | 3.6     | 7.8         | 18.1        | 1.0 |
|     | 3000~4000만원 | 183        | <b>26.8</b> | 14.2    | 18.6          | 16.9        | 1.6     | 7.7         | 12.6        | 1.6 |
|     | 4000~5000만원 | 157        | <b>29.3</b> | 14.6    | 19.7          | 15.3        | 0.6     | 10.2        | 10.2        | 0.0 |
|     | 5000~6000만원 | 107        | <b>23.4</b> | 11.2    | 19.6          | 19.6        | 0.9     | 7.5         | 16.8        | 0.9 |
|     | 6001만원 이상   | 180        | 13.3        | 19.4    | 18.3          | 12.2        | 2.2     | 12.2        | <b>21.1</b> | 1.1 |

-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는 ‘120 다산 콜센터’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답하였으며, 50대에서는 ‘대중교통서비스개선’을 60대에서는 ‘자전거타기운동/도로조성’이 2009년 인상 깊었던 서울시 중점 사업이라고 응답함

<표 4> 연령별 인상 깊었던 서울시 사업

(단위: %)

| 구 분 | 빈도     | 120 다산 콜센터 | 한강 르네상스     | 거리 르네상스 | 자전거 타기운동 도로조성 | 에코 마일리지     | 도심공원 조성 |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| 천만상상 오아시스   |    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|
| 전 체 | 1,015  | 22.3       | 14.4        | 16.2    | 18.0          | 1.9         | 9.2     | 16.9        | 1.2         |     |
| 연령  | 30대 이하 | 153        | <b>26.8</b> | 13.1    | 17.0          | 17.0        | 3.3     | 8.5         | 14.4        | 0.0 |
|     | 40대    | 280        | <b>27.5</b> | 15.4    | 17.5          | 15.7        | 1.8     | 7.5         | 13.6        | 1.1 |
|     | 50대    | 326        | 18.7        | 13.2    | 15.3          | 18.4        | 2.1     | 10.7        | <b>20.6</b> | 0.9 |
|     | 60대    | 256        | 18.4        | 15.6    | 15.2          | <b>20.7</b> | 0.8     | 9.4         | 17.6        | 2.3 |

- 인상 깊은 서울시 중점사업에 관한 응답 내용 중 다수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, 서울시 정책 수립 시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 성향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됨

- 반면,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나타낸 ‘에코마일리지 사업’, ‘천만상사오아시스’ 등과 같은 사업들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를 마련한다면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

## 2. 2010년 서울시민의 희망사항

2010년 서울시민이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‘소득증가’, ‘물가안정’, ‘국가 경제안정’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 이전의 상황처럼 경기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- 서울 시민들에게 2009년을 보내며 2010년 국가 및 가계경제에 가장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질문함
- 시민들은 ‘소득증가’와 ‘물가안정’, ‘국가경제 안정’ 이 평균 16%대로 가장 많이 바라고 사항으로 나타나 올 한해 줄어든 임금 및 물가상승 그리고 국가경제가 안정세를 회복 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
- 그 다음으로는 ‘정치적 안정’ 및 ‘사교육비 부담 감소’, ‘청년층 일자리 증가’ 순으로 나타남. 그 외에 기타 의견으로 ‘육아/보육 대책’과 범죄로부터의 ‘사회안전망 구축’의 의견이 일부 있었음



[그림 9] 2010년 가장 바라는 사항 - 상위 6개 (단위: %)



[그림 10] 2010년 가장 바라는 사항 - 하위 7개 (단위: %)

- 각 가구의 특성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바라는 사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. 그 중, ‘물가안정’, ‘국가 경제의 안정’, ‘정치적인 안정’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, ‘소득증가’, ‘사교육비 부담 감소’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남.
- 2010년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물가 및 가계안정을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판단됨

<표 5> 연령별 2010년 가장 바라는 사항

(단위: %)

| 구분 | 빈도    | 소득증가 | 물가안정        | 국가경제안정      | 정치안정 | 사교육비부담감소    | 청년층일자리증가 | 신종플루해소 | 고용안정 | 주택가격안정 | 전세값안정 | 이자부담감소 | 육아보육대책 | 사회안전망구축 |     |
|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|
| 전체 | 1,015 | 16.4 | 16.3        | 15.4        | 12.4 | 8.1         | 7.3      | 6.8    | 5.5  | 5.2    | 3.4   | 3.0    | 0.2    | 0.1     |     |
| 연령 | 30대이하 | 153  | <b>24.2</b> | 11.1        | 10.5 | 7.8         | 12.4     | 3.9    | 6.5  | 6.5    | 7.2   | 5.2    | 3.9    | 0.7     | 0.0 |
|    | 40대   | 280  | <b>19.3</b> | 15.4        | 14.3 | 6.8         | 17.1     | 1.4    | 7.5  | 4.3    | 5.7   | 2.9    | 4.6    | 0.4     | 0.4 |
|    | 50대   | 326  | <b>17.5</b> | 16.6        | 16.3 | 13.5        | 2.5      | 8.6    | 7.1  | 6.7    | 5.8   | 3.4    | 2.1    | 0.0     | 0.0 |
|    | 60대   | 256  | 7.0         | <b>19.9</b> | 18.4 | <b>19.9</b> | 2.7      | 14.1   | 5.9  | 4.7    | 2.7   | 3.1    | 1.6    | 0.0     | 0.0 |

### III. 정책적 시사점

금융위기 이후 서울시민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서울시 저소득층 지원 사업의 유지·확대·보수 필요

- 서울시 계층 간 균형발전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
  -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및 경기 부양책을 펼친 결과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서울시 역시 투자기관의 부채 증대 등으로 향후 재정건정성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
  -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 현상을 단계적으로 줄이고,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서민 주거 안정, 사회복지인프라 조성, 보육 환경조성 등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보완 유지 시킬 필요함

향후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및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필요

- 환경, 에너지 등 그린에코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유망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
  - 향후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 및 R&D에 기초한 환경, 에너지, 바이오 등 그린에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  - 도심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도심 특화형 중소기업(문화·관광, 애니메이션, 디자인, 패션 등)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서울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구축